

시조 태사공 묘소 진입로 공사 착공 안동권씨 능동재사 주변정비사업 일환책(2021.4.30~7.28)



권숙동 회장(오른쪽)과 권오익 사무국장이 시조 묘소 진입로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권해욱 대중회 회장은 권웅렬 고문과 권오록 고문이 기증한 능동성역화 추진사업비로 시조 묘소 진입로 공사를 추진해 왔으나, 예산 부족으로 고민하던 중 권광택 경상북도 도의원과 권남희 안동시의원이 도·시비 예산 1억 6천만원을 확보함에 따라 이번에 능동재사(陵洞齋舍) 정비사업의 일환책으로 진입로 공사를 성공적으로 착공하게 되었다. 본 사업은 4월말부터 7월말까지 진행된다.

능동재사가 국가민속문화재 제183호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능동재사 주변에 대해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 진입로 길이는 400m, 너비 2~3m 규모이며 마사토로 다져 황토 포장으로 바꿀 예정이다. 또 비만 오면 산모래

가 씻겨 내려가던 진입로에 배수로 설치 등 배수공사를 실시하며 진입로 전체 구간을 100여m씩 4개 구간으로 나눠 자연석 석축을 쌓아 아름다움 또한 돋보이게 할 계획이다.

5월 17일 오후 2시 권숙동 대중회 수석 부회장 겸 안동중진회장과 권오익 대중회 안동사무국장이 안동시 서후면 권태사길에 위치하고 있는 안동권씨 능동재사를 찾았다.

시조 묘소 진입로 입

구에는 공사 안내판과 출입금지 팻말이 세워져 있어서 들어갈 수 없었다. 진입로 입구 부근에는 진입로 곳곳에 석축을 쌓기 위해 크고 작은 자연석 돌을 산더미처럼 쌓아 놓았으며 공사용 불도저 1대도 대기해 놓았다.

이날 권숙동 회장 등이 능동재사 경내를 돌아본 결과 손 볼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 것을 발견했다. 뿐만 아니라 낭종공 단소 밑의 넓은 잔디밭이 잡초로 무성하여 잔디보석이 아쉽고 권태사신도비각의 담장 일부가 훼손되고 출입문이 허술해 보수가 시급한 실정이다. 대중회에서는 향후 이 사안에 대해서도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권오익 사무국장은 앞으로 능동재사 일원에 병충해에 강하고 꽃이 오래 피는 안동무궁화 묘목 1백여 그루를 심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도부장 권영건



진입로 입구에 공사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시조 태사공 묘소 안동시 문화유산 지정 안동권문의 성지 능동 성역화 사업



대중회에서 추진하던 능동성역화 사업으로 시조 태사공 묘소가 안동시 문화유산 제124호로 지정되었다. 안동시(시장 권영세)는 문화유산 보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시조 태사공 묘소(안동安東 권행權幸 묘墓) 1기를 안동시 문화유산으로 지정한다고 지난 5월 7일 고시(안동시 고시 제2021-141호)했다.

안동시는 시조 태사공 묘소를 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사유에 대해 “안동 권행 묘는 다른 안동권씨 시조인 태사 권행의 묘이다. 태사공의 묘는 오랫동안 실전되어 오다가 후손 권응에 의해 발견되었다. 이러한 전말은 응재 이종준이 찬한 묘비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태사공의 묘에도 작은 비석을 세웠으나 후에 부러져 다시 1588년(선조21)에 경상도 관찰사 권극지에 의해 다시 새겨지고, 외손인 서에 유성룡에 의해 개갈되기도 하였다. 이후에도 몇 차례 다시 새겼으나 1746년(영조22)에 관찰사 권혁이 다시 비석을 세우기에 이르렀다. 권행의 묘는 권행 자신의 역사상뿐만 아니라 묘비 등 다양한 석물들에 의한 조선시대 묘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동시 문화유산(유형유산)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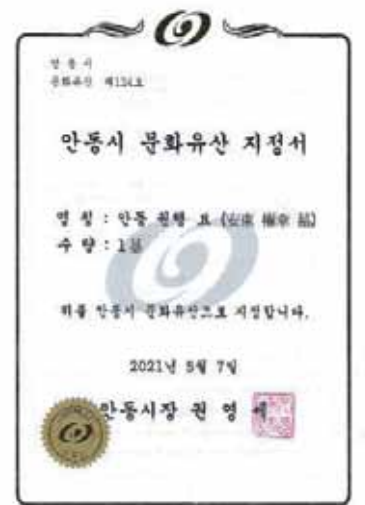
능동재사 일원은 시조 태사공의 묘소가 자리한 안동권문의 성지이다. 시조 태사공 묘소는 안동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시조 태사공의 역사적 위상이나 1천년이 넘는 시조 태사공의 묘소나 묘역에 대해 ‘역사적 가치’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능동재사(陵洞齋舍)는 국가민속문화재 제183호로 1984년 1월 14일 지정되었다. 권태사신도비(權太師神道碑)는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63호로 1985년 8월 5일 지정되었다. 안동시내에 있는 안동태사묘(安東太師廟)는 경상북도 기념물 제15호로 1974년 12월 10일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시조 태사공 묘소나 묘역 그 자체는 지금까지 국가문화재나 경상북도 기념물 또는 문화재자료 등으로 지정된 바가 없었다. 심지어 안동시 향토문화재로도 등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본보 2019년 8월호 보도) 이에 안동권씨 대중회에서는 능동 성역화 사업의 일환으로 대중회 안동사무소와 함께 시조 태사공 묘소를 문화재로 지정해 줄 것을 안동시에 건의한 결과 이번에 안동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받게 된 것이다. 특히 추진과정에서 권

주연 상임위원의 역할도 있었다.

안동권씨 대중회에서는 향후 시조 태사공의 묘역 및 관련 시설물 등이 경상북도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 후손들은 선조들이 물려주신 소중한 문화유적과 기념물 등을 문화재로 등록하는 등 성지를 성지답게 가꾸고 관리하여 자손만대까지 대대로 이어지게 해야 할 것이다.

편집국장 권행완



5월 임원 선임 및 회비 납부 내역



<임원 선임>

권오수 부회장(한국가스기술협회장) '21.05.20자

권택상 이사(서울영등포) '21.05.14자

부 회장

권영일(태광상사 대표) 1,000,000
권오실(전 교육장) 1,000,000
권충화 상임위원(광주중진회장) 1,000,000

이사

권병후(경기수원) 300,000
권영복(서울용산) 300,000
권영갑(경기수원) 300,000
권혁도(예천) 3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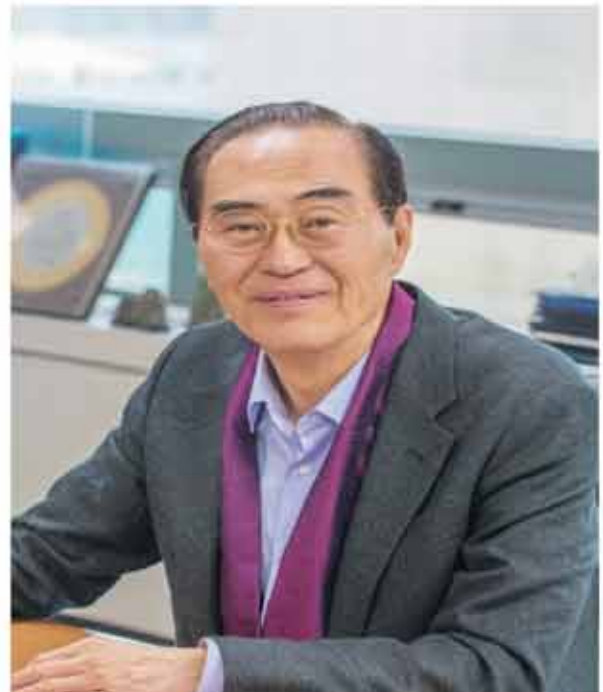
중무위원

권영채(예천) 200,000
권용호(포항) 200,000
권오길(경주) 200,000

※ 순서는 납부 순입니다.
총 : 4,800,000원

안동권씨대중회

전문 골판지 제조 기업



대양그룹 회장 권혁홍

대표번호 02-3472-5915 | 홈페이지 www.dygroup.co.kr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21 강남빌딩 5층 대양그룹